



산청군, 생초면 노은지구 새뜰마을사업 준공식

사업비 20억원 투입...마을길·화장실 등 정비

기사입력 2023.11.24 11:14:03 | 최종수정 2023.11.24 11:14:03 | 최원석 | ttlsuk@gmail.com



23일 산청 생초면 노은지구에서 새뜰마을사업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이승화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생초면 노은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마무리하고 23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 생초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준공시설 현장 확인 등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생초면 노은지구 새뜰마을사업에는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추진한 사업에서는 주택정비(슬레이트 지붕개량·빈집철거·집수리), 마을안길·배수로·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불량담장 정비 등이 이뤄졌다.

또 마을 안 위험 사면보강으로 마을 다목적공간을 확보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미끄럼방지 포장 및 하천변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주민의 위험부담을 제거했다.

특히 도로변 불량·노후 담장 정비와 함께 안전한 보행과 아름다운 미관 조성,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등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이승화 군수는 “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공모 선정부터 준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합했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산청군은 올해 3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됐으며, 현재 7개 지구에서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원석 (ttlsuk@gmail.com)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